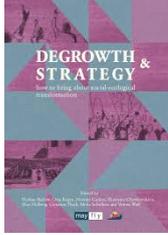


[노회찬정치학교] 탈성장기후정의세미나 - 교육과정 안내

구분	날짜	학습 내용	
1강	7.23. (화)	주제	탈성장의 배경
		읽을 책	 <p>『성장의 한계(2021)』 (도넬라 H. 메도즈, 데니스 L.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p>
		책 소개	<p>탈성장 논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지구물리적 한계와 사회경제적 한계의 이유를 알려주는 탁월한 고전. 1972년, 로마클럽의 위임하에 MIT의 젊은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델링과 그들의 세계관을 통해 도출한 ‘인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 『성장의 한계』 30주년을 맞아 번역을 다듬고 경제학자 홍기빈의 해제를 수록하여 새롭게 출간되어 우리의 더 깊은 이해를 돕는다.</p>
2강	8.27. (화)	주제	탈성장에 대한 이해와 오해
		읽을 책	 <p>『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2021)』 (제이슨 히켈)</p>
		개요	<p>『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이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체를 지적하며 ‘탈성장’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생태경제학의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대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인 안목까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p>
3강	9.24. (화)	주제	탈성장의 모자이크 조각들
		읽을 책	 <p>『탈성장 개념어 사전: 무소유가 죽음이 아니듯, 탈성장도 종말이 아니다(2018)』 (자코모 달리사외)</p>

		개요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 환경 위기의 원인은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욕구로부터 비롯된 악순환이다. 이러한 위기와 악순환에 대한 해법은 결코 성장이 될 수 없다.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새로운 생활 방식과 성장 없는 사회에 걸맞는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이 세계 각지에서 움트고 있다. '탈성장'은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복적인 용어다. 탈성장 논의의 역사적인 맥락에서부터 탈성장 사회의 핵심 개념들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52가지 제안한다.
4강	10.29. (화)	주제	탈성장의 상상
		읽을 책	 『미래의 지구: 온난화 시대에 대응하는 획기적 비전(2020)』 (에릭 홀트하우스)
		개요	그간의 기후변화 관련 책이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책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나가는 희망의 30년 서사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과 해수면 상승, 더욱 강력해진 허리케인, 심각한 홍수, 극심한 가뭄과 산불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도, 종말론적인 시선에 그치지 않고 미래학자·기후학자·생물학자·경제학자·기후변화 운동가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지구와 인간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의 지구'를 보여준다.
5강	11.26. (화)	주제	탈성장의 실행
		읽을 책	 『탈성장과 전략: 사회생태적 변혁을 일으키는 방법(2023)』 (나단 발로우 외) *국내 미발행
		개요	기후위기와 팬데믹 앞에서 탈성장 논의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 탈성장 논의의 배경과 현황,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탈성장 이론과 운동에서 다소 공백 상태였던 변혁 '전략' 논의를 본격화 하며, 구체적인 운동 사례들을 통해 탈성장의 적용과 발전을 모색한다. 비엔나 탈성장 그룹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펴낸 책자를 탈성장과대안 연구소가 국역하여 인터넷으로 공유한 것이다.

*미발행 도서 / 탈성장과 대안연구소(김현우 소장) 홈페이지에 공개

참고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과학(2022)』 (요한 록스트림 & 오웬 가프티) - 『미래는 탈성장: 자본주의 너머의 세계로 가는 안내서(2023)』 (마티아스 슈멜처 외) -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2018)』 (파블로 솔론 외) - 『탈성장을 상상하라: 성장 신화의 종말과 이후 시대(2023)』 (공규동 외)
------------------	---